

서울 보육시설 대폭 확대키로

내년까지 740곳 신설...대상아동 8만7천여명 전원수용

96.4.14

서울시는 13일 내년까지 보육대상 아동 전원을 보살필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대폭 늘려가기로 했다.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만명을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 3백70개소를 신설해 현재 83.3%인 시설 보육률을 91.9%까지 올리기로 했다.

이어 내년에도 같은 수의 보육시설을 신설해 갓난아부터 취학전 만5살까지의 보육대상 아동 8만7천명 전원을 수용할 능력을 갖추기로 했다.

시가 올해 신설할 보육시설은 △국립 및 구립 보육시설 30개소 △민간보육시설 1백60개소 △놀이방 1백80개소 등이다.

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보육시설은 △국·구립 4백4개소 △민간시설 6백13개소 △놀이방 1천83개소 등 모두 2천1백개로 아동 6만9천7백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.

서울시는 또 민간의 보육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보육시설에 아동 1인당 월 2만원의 영아간식비를 지



스포츠카 축제 행렬

13일 오후 경남 울산시 현대자동차 사원주택단지 일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스포츠카 '티뷰론' 대축제에서 고적대가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. 울산/연합

원하는 한편 놀이방 교재교구비와 영아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시설 설치비 용자를 앞선해주기로 했다.

시 관계자는 "보육시설이 양적으로 상당히 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육수요의 다양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민간의 보육사업 참여

를 적극 유도해 다양한 종류의 시설을 신설하는 등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펴나가겠다"고 밝혔다. 조연현 기자